

디보치오 모데르나(Devotio Moderna) 운동에 관한 역사적 고찰
A Historical Research on Devotio Moderna Movement

최용준(한동대학교 교수)

ABSTRACT

This article is a historical research on Devotio Moderna movement. It was a reformation movement in Europe, trying to transform the church and society at that time by rediscovering the true practice of piety such as that of humility, obedience and simple life. It is never to be underestimated because it has left considerably spiritual heritage and still makes a tremendous impact. This article, therefore, first investigates how this movement was begun by Geert Groote at the end of the 14th century in Deventer, the Netherlands. Furthermore, it deals with the development of this movement by F. Raderwijns, J. Cele and Thomas à Kempis to see how it has transformed Europe. In conclusion, an attempt is made to identify what kind of contribution it has made and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is reformation to Korean context.

Key Words: Devotio Moderna, Geert Groote, Johan Cele, Thomas à Kempis, Deventer

I. 서론

2017년은 교회개혁(Reformation) 500주년이었다. 하지만 'Reformation'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적 변혁(transformation)', 즉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중세가톨릭사회를 평등한 시민사회로 바꾸는 거대한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개혁은 마틴 루터(Martin Luther)와 장 칼뱅(Jean Calvin)에 의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다양한 준비과정을 거친 열매였다. 이중에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디보치오 모데르나(Devotio Moderna)'¹⁾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가톨릭교회가 부패하자 자체적으로 일어난 영적 갱신운동으로 개인적인 기도와 말씀묵상, 겸손과 순종 및 단순한 삶과 같은 진정한 경건을 실천하는 동시에 평신도들의 공동체적 삶과 교육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동시에 사회의 변혁을 추구하였는데 1370년 네덜란드 데벤터(Deventer)에서 히어트 흐로터(Geert Groote: 1340-1384)²⁾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말씀과 행동, 내적 및 외적 신앙 그리고 침묵과 헌신의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15세기에 네덜란드에서 꽃을 피워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유럽사회를 크게 변화시켰으며 교회개혁을 태동시켰으나 개신교가 등장한 이후 쇠퇴하였다.

나아가 이 운동은 데벤터의 공동생활 자매단(Zusters van het Gemene Leven) 및 쯔볼레(Zwolle)의 공동생활 형제단(Broeders van het Gemene Leven)으로 확산되어 북유럽에 큰 영향을 주었다(Smid, 1974: 114). 이 형제자매단은 평신도 공동체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적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신학적 사변이나 외면적 형식보다는 내면성의 충실을 강조하면서 특히 당시 성직자들의 영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를 비판하며 총체적 갱신을 시도했다. 또한 학생들을 잘 교육하면서 백성들의 생활환경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성경연구에 집중하면서 구어체 및 현지어로 된 성경 보급에 힘썼고 이를 위한 필사, 인쇄 및 출판에도 선구자였다. 이 운동에 의해 가장 많이 알려진 토마스 아 캠프이스(Thomas à Kempis: 1380-1471)는 유명한 『그리스도를 본받아(De imitatione Christi)』를 저술하였고(1418, 1982) 요한 첼레(Johan Cele)는 쯔볼레 라틴학교의 교장으로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키웠다. 하이마(Hyma)는 이 운동이 진정한 기독교를 부활시켰다는 의미에서 "기독교 르네상스(Christian Renaissance)"라고 부른다(Hyma, 1965: 5).³⁾ 존 반 엔언(John van Engen)도 이에 공감하면서 이 운동이 알프스 북쪽 유럽에서 르네상스 및 교회개혁 모두의 선구자라고 평가하고 있다(Van Engen, 2008: 1).⁴⁾

기독교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Erasmus)도 데벤터의 라틴학교 출신으로 토마스의 책 등을 통해 이 운동의 영향을 받아 『우신예찬(Stultitiae Laus)』을 출판하여(1511) 당시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였고 헬라이어 신약성경 본문을 편집, 출판하여(1516) 이후 개혁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루터와 칼뱅 또한 이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루터는 1497년 막데부르크(Magdeburg)에 있던 공동생활 형제단에 의해 운영되던 중등학교에 1년간 다녔는데 이때 성

1) 라틴어. 네덜란드어로는 Moderne Devotie, 영어로는 Modern Devotion, 한글로는 '새로운 경건' 또는 '근대적 경건'. 본 논문에서는 라틴어를 기준으로 사용하겠다.

2) 라틴명은 Gerardus Magnus, 영문명은 Gerard Groote이다. 본고에서는 네덜란드 명을 사용하겠다.

3) 포스트(Post)는 이 운동이 본질적으로 '내적 경건'을 지향하므로 교회개혁(Reformation)과 인문주의(Humanism)와는 대조된다고 주장한다(Post, 1968: 680). 필자는 이 운동이 개인적으로는 내적 경건을, 공동체적으로는 진정한 기독교적 사회를 구현하려는 시도였다고 본다.

4) 그러면서 그는 이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노동자 계급을 위한 새로운 명상 기술을 추구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새롭게 하기 위한 기초로 영혼의 개혁과 갱신을 지향하는 공동체적 노력이다"(Van Engen, 2008: 2).

경전체를 처음 읽으며 이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Hyma, 1965: 610) 나아가 공동생활 형제단에 있던 베슬 한스포르트(Wessel Gansfort)가 쓴 가톨릭교회 성찬론 비판에 깊이 공감하였다. 깔뱅도 몽뎬귀대학(Collège de Montaigu)에 있을 때 이 운동을 알게 되었는데 이 대학의 학장이었던 플레미쉬 출신의 개혁사제 얀 스탠돈크(Jan Standonck)는 네덜란드의 하우스다(Gouda)에 있던 공동생활 형제단에 있었다. 또한 깔뱅은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 3년간 머무는 동안 이 운동의 영향을 받은 요한 슈투름(Johann Sturm)이 세운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아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울 때 큰 도움이 되었다(Strand, 1977: 43-56). 나아가 '북구의 제네바'라고 불리던 엠든(Emden)에서 활동하던 개혁자들도 이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최용준, 2017: 197-225).

이 운동에 대해 영어(Zijl, 1963), 독일어(Iserloh, 1975) 및 네덜란드어로 된 연구물들은 많이 있으나⁵⁾ 국내에서 한글로 된 연구는 김명수의 박사학위논문 및 저서(2015)⁶⁾가 유일하다. 하지만 그의 저서는 학위논문과 거의 같은 내용이며 양자 모두 영문도서에 의존하고 네덜란드 원전을 직접 인용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본 논문은 네덜란드어 원전에서 직접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이 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흐로터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후계자들의 공헌 등을 역사적으로 살펴 보면서 그것이 유럽을 어떻게 변혁시켰고 이 운동이 남긴 유산은 무엇이며 한국교회 및 사회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결론적으로 도출하겠다.

II.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에 관한 역사적 고찰

1. 히어트 흐로터의 생애와 사상⁷⁾

1) 흐로터의 생애

흐로터는 1340년 10월 데벤터의 비교적 안정되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당시 데벤터는 유럽의 주요 무역항이었기에 시의 운영이 거의 무역 상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의 부친은 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인 상인길드회원으로 해외네트워크도 있었으며 1348년에는 데벤터 시장이 되었다. 따라서 흐로터는 일찍 라틴학교에 들어가 공부했다. 당시 교육은 주로 라틴어, 논리학 및 음악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배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가 10살이 되었을 때 부모가 페스트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삼촌에 의해 양육을 받다가 15세인 1355년에 파리(Paris) 소르본느(Sorbonne) 대학으로 유학 갔다. 여기서 그는 당시에 저명한 학자였던 윌리엄 오캄(William of Ockham)의 제자가 되어 2년 만에 학사학위를 받았고 그 후 신학과 교회법을 공부하여 1년 후 박사학위를 받았다. 1358년부터 1362년까지 그는 쾰른(Köln)과 프라하(Praag)도 방문하였고 1366년에는 당시 교황이 있던 아비뇽(Avignon)을 다녀온 후 1368년부터 1374년까지 아헨(Aachen) 돔 성당에서 1371년부터 1374년까지는 위트레흐트 성당에서 의전사제(canonicus)로 일했다.

1372년에 흐로터는 중병에 걸려 생명이 위독했으나 당시 담당 사제는 그가 마술책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병자성사(heilige oliesel) 집전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그는 마술책들을 모두 불태웠고 성사를 받은 후 기적적으로 나았다. 그러면서 그는 깊이 회심하였고 1374년

5) 김명수의 박사학위논문 "Devotio Moderna 운동과 종교개혁"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09) pp. 11-14 참조.

6) 『기독교 르네상스와 루터의 종교개혁』, (서울: 그리스, 2015).

7) 현재 데벤터에는 그를 기념한 히어트 흐로터 하우스가 있다(www.geertgrootehuis.nl). 이 건물은 최초의 공동생활 형제단 예배당이 있던 자리에 세워졌다.

에 의전사제직도 내려놓은 후 자신의 집을 가난하고 경건한 여성들에게 제공하여 공동생활 자매단이 시작되었다.

그 후 3년간 그는 아르헨의 모니끄하우즈에 있는 카르투스수도원(kartuizer klooster Monnikhuizen bij Arnhem)에 머물며 기도와 연구 및 집필에 전념했다. 거기서 친구이자 수도원장이었던 헨드릭 에거 판 깔까르(Hendrik Eger van Kalkar)와 수도사들의 엄격하고 진지한 자세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www.geertgrootehuis.nl/wie-was-geert-groote). 1378년부터 1379년까지 그는 책을 구하러 다시 파리를 방문하였는데 쾰레 라틴학교 교장이던 켈레와 동행하였다. 돌아오며 흐루는달(Groenendaal) 수도원에 있던 안 판 루스브룩(Jan van Ruusbroec)을 만났고 그 후 양자 간 서신교환이 계속되었다.

흐로터는 1379년에 위트레흐트에서 집사(diaken)로 임명되었고 그 때부터 네덜란드 북쪽 도시들을 다니며 라틴어가 아닌 네덜란드어로 설교하면서 성직자들의 타락과 개인 재산을 소유한 수도원들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는 쾰레, 데벤테, 캄펜(Kampen), 암스테르담(Amsterdam), 할렘(Haarlem), 하우다, 레이든(Leiden), 델프트(Delft), 주트펜(Zutphen) 등을 순회하여 큰 열매를 거두었다. 그러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교회법보다 개인의 신앙양심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 결과 공동생활 형제단과 자매단 및 빈데스하임 공동체(Windesheimer Congregatie)가 탄생하게 되었다.

위트레흐트 주교는 처음에 흐로터를 지원해 주었지만 그가 평신도들의 죄 뿐만 아니라 세속적 사제들의 성물매매, 탐욕, 축첩행위 등도 비판하자 그의 설교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흐로터는 자신의 설교 중심이 그리스도이며 내용은 가톨릭 교리와 조화를 이루고 자신도 교회에 복종한다고 하면서 교황 우르반(Urban) 6세에 항소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개인 접촉을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⁸⁾

더 이상 설교할 수 없게 되자 흐로터는 데벤테를 떠나 바우드리헴(Woudrichem)에 머물며 기도, 묵상, 연구 및 집필에 전념하였다. 또한 성경을 네덜란드어로 번역하여 평신도들이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그는 페스트에 걸린 친구에게 문병 갔다 전염되어 1384년 8월 20일,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의 선구자였으며 역사적으로 볼 때 데벤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일 것이다. 그의 사후 이 운동은 라더베인스(Florens Radewijns)⁹⁾, 체어볼트(Gerard Zerbolt van Zutphen)¹⁰⁾, 토마스, 켈레 등에 의해 계승되었고 그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다.¹¹⁾

8) 이러한 흐로터의 근본주의적인 태도로 인해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그를 이후에 나타난 도미니쿠스회의 설교자요 이태리 피렌체의 종교개혁자이며 사제였던 사보나롤라(Girolamo Savonarola: 1452-1498)와 비교하기도 했다(www.geertgrootehuis.nl/wie-was-geert-groote).

9) 라더베인스는 1350년 리어담(Leerdam)에서 태어나 1378년 프라하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흐로터의 강연을 듣고 감명을 받아 사제가 되었다. 위트레흐트 성 베드로 교회의 의전사제로 일하다가 흐로터의 설교를 들은 후 이 직분도 내려놓고 데벤테로 와서 1380년부터 '공동생활 형제단' 및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을 주도했다. 흐로터 사후에 공동생활 형제단은 그의 집에서 계속되었고 그는 이 형제단을 발전시켜 1386년 빈데스하임 공동체를 창설했으며 경건서적들도 집필하여 토마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쓰는데 영향을 주었다. 빈데스하임 공동체를 시작할 때 그 중에는 토마스의 형인 요한도 있었다. 토마스 자신도 13세 때부터 21세까지 라더베인스의 돌봄과 지도하에 있었는데 그는 그의 스승에 대해 성경 및 모든 거룩한 학문에 통달하였으며 매우 경건하고 겸손하며 단순하고 열정적인 동시에 자애롭고 매우 절제하는 인물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의 엄격한 생활은 건강을 해쳤고 결국 1400년 3월 24일에 데벤테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형제단에서 성인으로 존경받았으며 그의 유골은 흐로터의 그것과 함께 데벤테의 형제교회(Broederkerk)에 보존되어 있다.

10) 체어볼트는 1367년 주트펜(Zutphen)에서 태어나 1383년부터 1385년까지 데벤테의 공동생활 형제단이 운영하는 성 레부니우스학교에서 공부했다. 그는 흐로터를 본받아 학업과 묵상 및 기도에 힘썼고 플로렌스하우스에 함께 살면서 책을 사랑하여 도서관장 및 필사자가 되었다. 라더베인스 사후에 학교 교장으로 일하다 1398년에 페스트가 데벤테에 돌아 그곳을 떠나 아머스포르트(Amersfoort)에 머문 후 돌아왔으나 빈데스하임에서 중병으로 31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11) 흐로터가 세상을 떠난 지 600년이 되던 1984년 4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위트레흐트에 있는 왕립 카타레인

2) 흐로터의 사상

중세 로마가톨릭교회가 부패하자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개혁운동이 일어났다. 흐로터보다 백년 앞서 이태리에서는 프란시스(Franciscus van Assisi: 1181-1226)가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창시하여 개혁을 주도하였고, 스페인과 프랑스 남부에서는 도미니쿠스 구즈만(Dominicus Guzmán: 1170-1221)이 도미니크 수도회를 설립하여 갱신을 시도하였다. 나아가 많은 수도원들은 버나드 끌레르보(Bernardus van Clairvaux: 1090-1153)가 세운 시토회(Ordo Cisterciensis)에 가입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흐로터가 가장 강조한 점은 각자 자신의 영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중개자는 필요 없고 자신의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형제자매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수도원에 서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여 당시 교회와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더 심각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몇몇 공동체들은 성 프란체스코 수도원 규율을 채택했는데 평신도들을 위한 이 규율은 흐로터의 이상과도 잘 맞았기 때문이었다. 이 운동은 결국 교회개혁의 선구라고 볼 수 있는데 교회개혁운동도 이 운동이 확산된 지역에서 일어났고 그 중에서도 북서유럽의 한자동맹지역이 그 중심지였다.

또한 흐로터 사상의 핵심은 내적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이는 자신을 부인하고 침묵에 의해 성취된다고 보았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속, 죽음, 최후심판, 천국과 지옥을 묵상하는 것이 본질적이었으며(Hand, 2006) 또한 일상생활 및 노동에서 덕을 쌓으며 기도와 명상을 통해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강조했다(Weismayer, 1992: 571-572). 흐로터는 회심 후 소천할 때까지 약 10년간 수도원을 세우지도 않았고 제자들을 키우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주변의 동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어 형제자매 공동체가 확장되었고 빈데스하임 수도원도 생겨났는데 이것이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의 시초가 되었다(Hiddema, 1984: 6-11). 그의 사상 중심에는 '고난 받는 그리스도'가 있었으며 이는 그의 제자 토마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를 17세기 유럽 경건주의운동의 선구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평신도 공동체 및 빈데스하임 수도원 운동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진정한 경건생활을 통해 교회개혁 및 사회변혁을 추구한 동시에 초대교회 공동체를 본받은 평신도 중심의 공동체운동도 일으켰다.

1) 공동생활 자매단

수녀원 박물관(Rijksmuseum Het Catharijneconvent)에서 '히어트 흐로터와 디보치오 모데르나'라는 제목의 전시회가 개최되어 흐로터 및 이 운동의 다양한 부분들이 전시되었다. 이어서 데벤터에서는 8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히어트 흐로터 시대의 영적 및 세계적 데벤터(Geestelijk en Wereldlijk Deventer ten tijde van Geert Grote)'라는 제목의 다른 전시회가 열렸다. 이중에 드 박(De Waag) 역사박물관은 세상적인 면을, 아테나움 도서관(Athenaeum Bibliotheek)은 영적인 면을 전시했다. 또한 여러 논문들도 발표되었다(Defoer & Slechte, 1984: 4-5).

평신도들에게 관심이 많던 흐로터가 자신의 집을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 중 평신도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가난한 여성들을 위해 제공하면서 1379년에 공동생활 자매단이 창설되었다(Bollman, 2004). 당시에는 흑사병이 돌면서 남성들이 많이 죽어 여성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고 홀로 사는 여성들을 위한 사회복지제도가 없었기에 이들은 함께 살면서 서로 도왔다. 그들은 일 년에 한번 선출한 임원들의 감독 하에 살았고 흐로터는 자매들의 영적인 부분을 돌보면서 그들이 바느질 등의 수공업을 통해 자급자족하도록 했다. 처음에는 재산을 공동소유하지 않았으나 1384년 쾰블레에 설립된 자매단은 재산도 공유하였다.

자매들은 실천적 경건을 추구했는데 나중에도 수녀원처럼 서원은 하지 않고 1392년에 임명된 요하네스 브링커링크(Johannes Brinckerinck) 원장의 감독 하에 함께 생활했다. 15세기 초 데벤테에 6개의 자매단이, 쾰블레와 주트펀에 4개, 덴보쉬(Den Bosch), 아머스포르트 및 위트레흐트에 3개, 흐로닝언(Groningen)에 2개, 델프트, 하슬트(Hasselt), 호른(Hoorn), 레이든 및 레든(Rheden)에 각각 하나씩 있었다.

2) 공동생활 형제단

흐로터의 설교가 자매들뿐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자 라더베인스가 형제들을 위해 쾰블레에 큰 집을 제공하여 공동생활 형제단도 시작되었다. 심지어 성직자들 중 일부도 이 형제단에 가입했다. 이들은 검소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예배, 독서, 및 노동을 하며 함께 식사하고 식사 때마다 성경을 읽었다. 형제단들은 엄격한 규율을 준수하였으나 수도원처럼 특별한 서원은 하지 않았고 필사 또는 학생들 하숙 등을 통해 생계를 이어갔다. 이러한 형제단은 독일에도 급속히 퍼져나갔고 더욱 판 헤르센(Dirk van Herxen)이 1409년에 쾰블레 형제들의 집 관장이 되면서 쾰블레는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하지만 1416년의 혁명으로 형제단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 판 헤르센은 쾰블레를 떠나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덴보쉬, 두스부르크(Doesburg), 흐로닝언 및 하르더베이크(Harderwijk)에 새로운 공동생활 형제단을 설립했다.

형제단의 규정은 거의 수도원과 같았다. 그들은 덕성함양과 검소한 삶 이외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았으며 집도 매우 소박한 서민주택이었다. 쾰블레 형제들은 정체성을 상실할까 염려하여 규모를 확대하지 않았고 일 년 수입도 한계를 정했으며 기타 수입은 도서관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다. 또한 매주 토요일에는 형제들의 필사본을 전시 및 판매하였는데 당시 필사본은 고가에 판매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1464년에서 1476년 동안 쓰인 다섯 권의 성경으로 '쾰블레 성경'이라고 불린다.

이 형제들 대부분은 평신도들이었다. 그들은 자선사업, 병자간호, 성경연구 및 경건서적을 필사하는데 헌신했고 나아가 학교들을 설립하여 교육에 힘썼는데 그 수준이 높기로 유명했다. 유명한 사람들이 이 학교에서 배출되었으며 그 중에 니콜라우스 폰 쿠에스(Nikolaus von Kues), 토마스 및 에라스무스가 있다. 2016년에 경제학 저널(Economic Journal)은 이 형제단이 "문맹률을 낮추고 출판수준을 높이며 네덜란드 도시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Akçomak, Webbink, ter Weel, 2016: 821-860). 따라서 이 형제단은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공헌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한자도시들인 데벤테와 쾰블레는 무역을 통해 이 운동을 확산시켜 15세기에 형제단은 독일에 정착했다. 독일의 헤어포드(Herford)에 있던 형제 공동체는 교회개혁 때까지 있었으나 지역 관공서는 이를 폐쇄하려고 했다. 그러자 형제들은 1532년에 루터에게 편지를 보내 도

움을 요청했고 루터는 그 시의회에 편지를 보내 이들을 보호해 주었다. 루터는 그의 편지에서 "당신들의 생활방식은 복음에 합당하므로 저는 한없이 기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같은 공동체가 더 많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계속 정진하면서 복음의 확장에 힘쓰십시오"라고 했다(Wengert (ed.), 2005: 125-152). 그 결과 이 헤어포드 공동체는 1841년까지 남아 있었다.

3) 공동생활 형제단 및 자매단의 가치들

이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을 네덜란드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 밍크 드 프리스(Mink de Vries)는 네이메헌(Nijmegen)에서 이 운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티투스 브란스마 연구소(Titus Brandsma Instituut)와 데벤터의 디보치오 모데르나 센터(Centrum voor Moderne Devotie) 등 기타 연구를 통해 공동생활 형제단 및 자매단의 사회적 가치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첫째, 공동체 내에서는 모든 것을 공동소유하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남는 사람으로부터 받는다.

둘째, 검소한 삶을 추구하며 불필요한 낭비를 하지 않는다.

셋째,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전체가 고통을 분담하며 한 지체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전체 공동체가 기뻐한다.

넷째, 공동체는 가능한 자급자족하여 제 삼자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다섯째, 내적인 헌신을 강조하며 자신의 이익 추구가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는데 중점을 둔다.

여섯째, 공동체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교도소에 있는 자 및 외국인들에게 특히 강한 책임을 느낀다.

일곱째, 공동체의 지체들은 서로 사랑한다.

여덟째, 공동체는 자라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너무 커지면 새로운 공동체에 적합한 장소를 함께 모색한다.

아홉째, 각 지체는 공동체 내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며 재능과 소명을 성장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로 보았다. (De Vries, 2018)

형제자매들의 공동체 생활은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에 기초해 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도 매우 중요하여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은 성령 운동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드 프리스는 이 운동의 영적 가치들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첫째,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입관 없이 받아들인다.

둘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며 신뢰한다.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기도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넷째, 각 사람은 평등하다.

다섯째, 공동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각자 한 표를 행사하며 결정과정은 공개한다.

여섯째, 한 사람이 하나의 노래, 텍스트 및/또는 만남에 큰 감동을 받았을 경우, 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했을

경우, 이것을 노래로 만들거나 텍스트로 적어 두는 것이 좋다.

일곱째, 성경을 공부하고 읽으며 이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기도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여덟째, 형제자매로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 즉 그리스도를 의뢰함으로 죽음의 경계도 넘어 독립적이다.

아홉째,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은사이다. 원칙상 모든 사람을 환영한다. 열린 공동체라는 의미이다.

열 번째, 이웃 사랑 특히 약자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다. 가난한 사람, 병자, 외로운 사람과 외국인들을 특히 돌본다.

마지막으로 내적인 평안을 추구하는 것은 각 형제자매에게 중요한 가치이다. (De Vries, 2018)

중세 역사가인 카스퍼 엘름(Kaspar Elm)은 이들을 평신도와 사제 계급 사이에 있는 제 3의 중간 계층으로 보았다(Van Engen, 2008: 14). 이들은 새로운 교단을 설립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지역 교회에 충실했으며 겸손과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면서 덕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이들은 많은 경건 서적들을 모국어로 번역하여 개인 경건에 활용하였으며 이들 중 가능한 사람에게 말씀 나눔(collations)도 허용되었는데 이것은 오직 덕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4) 빈데스하임 수도원 운동

공동생활 형제단이 특별한 수도원의 규율을 따르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흐로터는 유언을 통해 인정된 수도회의 규정을 채택할 것을 조언하였다. 그러자 라더베인스는 이를 받아들여 6명의 형제들을 선발하여 이 일을 맡겼는데 그 중 하나가 토마스의 형 요한이었다. 요한은 에임스타인(Eymsteyn) 수도원에 가서 규율을 배워왔다. 흐로터가 세상을 떠난 후 1386년에 베르톨트 텐 호브(Berthold ten Hove)가 빈데스하임에 있는 땅을 라더베인스에게 기증하자 그는 이곳에 임시 수도원을 세우고 다음 해 3월에 수도원과 교회를 정식으로 개원하였고 6명의 수도사가 서원을 하였다. 규율은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에 맞게 정해졌다. 그 후 쾰른의 아그니텐베르그(Agnietenberg)에 두 번째 공동체가 생겼다.

공동생활 자매단 또한 수녀원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암스테르담에 1389년에 설립된 자매 공동체가 1393년에 어거스틴 수녀원의 규율을 도입하여 성 마리엔펠드(St. Mariënveld) 수도원이 되었고 빈데스하임 공동체에도 가입하였다. 1401년에 브링커링크는 디펜페인(Diepenveen)에 수녀원을 설립하고 1412년에 빈데스하임 공동체에 가입하였다(Van Herwaarden, 1984: 21). 그러자 홀란드의 귀족들 중에도 수도원 및 수녀원 운동이 일어나 1444년에는 델프트에 시온(Sion) 수도원이 설립되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확장되어 나중에는 25개의 수도원 및 수녀원이 가입하였다. 이 외에도 십쿨로(Sibculo)에 다른 수도원이 설립되었는데 시토수도회(Cisterciënzers)에 속해 있었다. 여기서 십쿨로 연합체(Collegatie van Sibculo)가 생겨났는데 이 단체는 시토 수도회 내 약 20개의 개혁적인 수도원들이 모인 협력체로 이 중에는 어거스틴 수녀회의 규율을 선택한 평신도 수녀회도 있었

다. 나아가 이 수도원들과 수녀원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와 교제를 유지하였으며 그 안에 흐로터의 영성이 살아있었다.

빈데스하임 수도원의 두 번째 원장인 요한 보스 판 후이스든(Johann Vos van Heusden: 1391-1424) 때에는 더 많은 수도원들이 세워졌다. 빈데스하임 공동체의 규정은 매우 엄격했지만 충분한 숙면, 좋은 식사 그리고 순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은 확실히 보장되었다.

빈데스하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개혁사역이었다. 이것은 수도원 개혁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속적인 사제 및 평신도들에게도 해당되었다. 빈데스하임 수도원은 카르투시안 및 도미니칸 수도회와 같이 전혀 새로운 규율을 따라 보다 중앙화된 형태를 취했다. 모든 수도사들은 원장에게 복종해야 했는데 가령 원장은 필요시 수도사들을 이동시킬 권한이 있었다. 1573년 이후 수도원들 전체를 대표하는 원장은 여러 수도원 원장들에 의해 선출되었다. 이곳은 어거스틴 수도회의 규율을 따르는 공동체로서 공동생활 형제단과 수도원이 결합되어 생활하면서 설교도 하고 책을 쓰며 여러 봉사도 했다. 이런 모델은 당시 타락한 수도원들을 개혁하는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네덜란드 주변 도시로 번져나가 쾰른을 비롯해 흐로닝언, 덴보쉬, 하우다 등지로 확산되었고 나아가 베스트팔렌(Westfalen), 라인 강 주변, 작센(Sachsen), 바이에른(Bayern), 엘사스(Elsas), 홀슈타인(Holstein), 폼머른(Vommern), 플레미쉬 지역 그리고 남쪽으로는 스위스까지 확장되었다(Acquoy, 1968: 1). 그리하여 1402년에는 7개의 수도원, 1407년에는 12개, 1412년에는 16개, 1424년에는 29개 그리고 1430년에는 45개였는데 그 중 형제 수도원이 37개였고 수녀원이 8개였다. 1497년에는 무려 84개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것은 당시에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다. 이 운동은 전체 한자동맹도시로 퍼져 16세기에 전성기를 누렸고 빈데스하임이 중심이 되어 교회개혁운동이 일어나기 전 네덜란드와 독일의 가톨릭교회를 개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빈데스하임 수도원은 1572년부터 몰락하기 시작했고 교회개혁 및 스페인에 대항하는 독립전쟁 기간 중에 오렌지 공을 따르던 독립군에 의해 1581년에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 과정에 성 안 반 오스터베이그(St. Jan van Osterwijk)를 비롯해 적지 않은 순교자들도 있었고 마지막 수도사는 마르셀루스 렌티우스(Marcellus Lentius)였다. 빈데스하임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건물은 80년 독립전쟁 기간에는 맥주 양조장으로 사용되다가 1634년부터 현재까지 개신교회당으로 쓰이고 있다. 교회개혁에 살아남은 공동체들은 1728년에도 32개가 있었으나 18세기 말 또는 19세기 초에 프랑스 혁명으로 거의 사라졌다. 당시 황제였던 오스트리아의 요셉 2세(Joseph II) 관할 하에 있던 네덜란드 공동체들은 폐쇄되었고 그 후 프랑스 혁명군들은 나머지 공동체들도 없애버렸다. 20세기 초까지 남아 있던 공동체는 네덜란드의 우덴(Uden) 공동체뿐이었다.¹²⁾

빈데스하임에는 수많은 작가들이 있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은 역시 토마스였고 그 외에도 다수의 역사책들을 펴냈다.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Vulgate) 성경에 대한 수정판 및 여러 교부들의 텍스트 수정작업도 여기서 이루어졌다. 가브리엘 빌(Gabriel Biel)은 최후의 독일 스콜라 학자로 이 공동체의 회원이었으며 르네상스 학자인 에라스무스 또한 회원이었다.

빈데스하임 공동체를 통한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은 약 200년간 여러 수도원들 및 수도

12) 칼 에거(Karl Egger)신부는 교황 피우스 12세(Pius XII)에게 빈데스하임 공동체의 부활을 제안하자 교황 요한 23세(John XXIII)가 1961년에 허락하여 빈데스하임의 모체 건물이 독일 바이에른(Bayern)주 파링 수도원(Paring Abbey)에 복원되어 있다.

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당시 네덜란드와 유럽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으며 교회개혁을 준비하는 등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 가령 성경을 헬라어와 당시 언어(Nederduits)로 번역하여 일반 시민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로마가톨릭교회 및 중세 사회의 위계적 권위구조가 타파되고 신앙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백성들은 권력 남용과 지옥 및 심판을 통해 겁주는 설교에 대해 등을 돌렸다. 사람들은 더욱 자신의 양심과 판단을 중시했으며 진리는 교회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님을 천명했다. 특히 공동체의 삶과 내적인 갱신이 그 중심 요소였다. 그 결과 기독교 인문주의자인 한스포르트와 에라스무스가 등장했고 보다 더 자유분방하고 실용적인 사고방식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러한 공동체가 발전하게 되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성경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이 교회개혁의 선구자라고 하는 것은 교리보다는 부패한 당시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조직관리 및 사회공헌

이들이 살던 집들과 수도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행정이 요구되었다. 새로운 회원들이 들어오고 탈퇴하며 그들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회원들이 세상을 떠날 때마다 적지 않은 법적 업무들이 수반되었다. 그런 점에서 흐로터가 원래 법학자였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들은 공증 및 정관 업무를 감당해야 했으며 부동산 관리도 적지 않은 일이었다. 또한 쾰레에서 학교를 시작한 첼레도 지적인 업무 외에 모든 학습용품들에 대한 재고정리 및 물류관리에 많은 노동이 필요했다. 나아가 도서관 운영, 서점에서의 판매, 구매 및 지점 개설 등 할 일들이 적지 않았다.

형제자매들 간의 업무 분담, 공동체 주택 및 수도원들 관리, 책임자 임명 및 부원 배치하는 일들 또한 쉽지 않았고 공석이 발생할 경우 대체 인력을 선발하는 일도 많았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흑사병이 창궐하여 매일 사망자가 발생하므로 후임자를 세우는 업무도 신경 쓰이는 일이었다. 가령 1391년에 플로렌스하우스에서 발생한 흑사병으로 공동체를 두 곳으로 나누어 데벤테와 아머스포르트로 이전시켜 전염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모든 사역들을 통해 순간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웠다.

나아가 이들은 내적으로 경건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검소한 의복과 삶에 대한 진지하고도 경건한 태도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당시 데벤테에는 그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부유하고 세속화된 사람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네덜란드의 역사학자 프리츠 반 오스트롬(Frits van Oostrom)은 이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은 영적 갱신운동으로 전 세계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다(Van Oostrom, 2013).

4.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의 영성

흐로터 이후 세대들이 이 운동을 계승하며 당시 개혁운동은 형제단 및 자매단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그리하여 15세기에는 평신도들의 경건운동이 확대되어 소그룹에서 개인 기도가 증가하였다. 특히 그리스도의 생애 및 고난을 매일 묵상하였는데 이는 여러 서적뿐 아니라 다양한 조각에도 표현되었다. 이 시대만큼 그리스도의 수난에 관해 많은 책들이 나온 적이 없었고 이 책들은 지역 언어로 쓰여 평신도들이 직접 읽고 묵상하는 교재로 사용되었다. 또

한 요한 스홀켄(Johan Schutken)과 라더베인스는 성경을 번역하여(Caron, 1984: 26-28) 나중에 네덜란드어로 성경이 출판되는데 공헌했다.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에는 주요 지도자들의 모범적 생애가 동력원이었다. 당시 형제자매들은 많은 시간을 기도와 독서에 사용하는 동시에 열심히 일했다. 이들은 가급적 침묵하며 그리스도를 목상하는 경건생활을 했는데 이것을 '내면성(innigheid)'이라고 불렀다(Caron, 1984: 28-29). 특히 그리스도의 성육신, 수난 및 죽으심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신 것을 목상하면서 그 고난을 본받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이것을 노래로 표현하였는데 자매들이 여러 찬양을 작사 작곡하였다(Caron, 1984: 31).

이처럼 이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 특히 성탄절은 매우 중요해 아기 예수를 형상화하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깊이 목상하며 내적 경건의 주제로 삼았다. 또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목상하는 수녀들도 많아 세상을 떠나 육체와 분리되어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들의 영혼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결혼생활로 들어간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지상에서 그들의 삶은 천상의 결혼을 준비하며 고난의 연단을 받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 세상에서 침묵하고 순종하며 겸손히 덕을 쌓는 삶은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거할 '처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처럼 자매들은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을 추구했지만 신비주의자는 아니었다. 자매들이 간혹 신비로운 경험을 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금욕과 건덕을 위한 삶에 더 집중했다(Caron, 1984: 32).

이들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보좌에 앉아계시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흐로터도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았으며 곧 죽음과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곧 지나간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였고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믿었다. 이를 주제로 한 성화도 많이 제작되었는데 특히 델프트 또는 레이든 지역의 수도원에서 그려졌다(Caron, 1984: 34).

특히 흐로터는 당시 위트레흐트 돔 성당 건축을 바벨탑에 비유하면서 이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교회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우선시해야지 건물에 지나치게 투자하고 그 안을 값비싼 예술품으로 장식하기 위해 많은 재정을 지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토마스는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다. 예배당 안의 다양한 장식물들이 신앙을 더 깊게 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도 인간에게 지나친 숭배를 하는 것은 경고했다.

또한 이들은 예술을 통해 경건생활을 지속했는데 매일 성화들을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자매들은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그림을 보며, 다른 자매들은 성모 마리아를 보고 목상하면서 경건생활에 힘썼다. 또한 예배당의 다양한 제단화들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주로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가 형상화 되어 있었다(Caron, 1984: 36-37). 이 제단화를 그린 대표적인 화가는 레이든에서 활동하던 꼬르넬리스 앵어브레흐츠(Cornelis Engerbrechtsz)와 네덜란드 남부에서 활동하던 얀 판 에이크(Jan van Eyck)였다. 특히 얀이 제단화로 그린 '어린 양 경배(Adoration of the Lamb)'은 최고의 명작으로 인정받고 있다. 조각품들도 이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가령 목재로 조각된 성 어거스틴 상 등이 있다(Caron, 1984: 38). 당시에 그리스도는 보통 겸손하며 단순하고 맨발에 평범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그리고 17세기에는 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으로 조각되었다(Caron, 1984: 40). 이 분야에는 여룬 보쉬(Jeroen Bosch)가 대표적인 대가였다.

요컨대 디보치오 모데르나의 영성은 그리스도에 집중하되 특히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및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형상화하였다. 형제자매들은 특히 그리스도의 생애 및 고난을 깊이 묵상하되 자매들은 베들레헴을, 형제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에 더 집중했다(Caron, 1984: 40). 이와 관련한 성화들과 성상들은 보통 수도원 및 수녀원의 채플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당시 가장 많이 조각된 성인들은 어거스틴, 그레고리우스(Gregorius), 히에로니무스(Hieronymus), 아그네스(Agnes) 및 베르나르두스(Bernardus) 등이다(Caron, 1984: 41).

5.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에서 도서들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에서 도서의 영향이 매우 컸는데 이는 무엇보다 흐로터의 역할 때문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책을 읽었는데 교회개혁은 가능한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것은 책들을 통해서라고 보았다. 이렇게 그가 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파리 유학시절과 아르헴 수도원에 있을 때 받은 영향 때문이다. 당시 유럽지성의 중심지였던 파리 대학에서 많은 책들을 접하면서 그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아르헴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책들을 복사하고 보존하는 방식에 큰 감동을 받았다. 토마스도 “말은 금방 사라지지만 문자는 계속해서 남아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다... 책이 없는 영혼은 무기 없는 군인, 고삐 없는 말, 펜이 없는 작가 그리고 날개 없는 새와 같다”고 말했다(Bedaux, 1984: 43).

그래서 흐로터는 회심 후 다시 파리로 가서 많은 서적들을 구입했다. 당시에는 아직 인쇄술이 발명되지 않아 그 때 서적들은 직접 필사한 책들이었다. 라더베인스도 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 나중에 쾰블레에 설립한 형제공동체에 도서관과 필사실(scriptorium)을 만들어 도서관장(librarian)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Bedaux, 1984: 44). 도서관장은 책들을 잘 관리하면서 텍스트가 잘 보이지 않으면 다시 써서 보완했고 찢어지거나 손상된 책들은 수리하였으며 대출도 정확히 기간을 준수하도록 신경을 썼다. 매년 여름 모든 책들을 점검하고 재정비했으며 식사 때마다 책을 읽는 사람도 있었다. 공동체 밖으로 책을 대출할 경우에는 관장의 허락이 필요했고 특별한 책은 학장의 허가도 받아야 했다.

또한 필사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특히 ‘펜의 형제들(broeders van de penne)’이라고 불렸다(www.geertgrootehuis.nl/onthulling-beelden-op-3-september-2017). 필사과정에 오류가 없도록 철저한 감독도 이루어졌고 잉크도 질 좋은 것을 사용해 책이 나중에 변질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다. 매년 재정보고가 이루어져 이에 따라 다음 해의 인력 및 도서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주문을 받아 책을 한 권 복사하는 것은 상당한 수입원이 되었는데 보통 신앙서적의 주문이 들어왔다. 또한 다양한 도서들을 주문하여 도서관은 계속 확장되었다. 이러한 사역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 기준을 넘을 경우 남은 금액은 다른 도서관에 3분의 1을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다(Bedaux, 1984: 45-46).

도서에서 사용하던 종이는 처음에 프랑스에서 수입했으나 1400년 이후부터 네덜란드에서 대량 생산하여 양피지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했다. 당시 형제들은 매일 4-5시간 정도는 필사하는 노동을 했다. 하지만 15세기 중반에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이 분야에 큰 경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필사하는 주문은 주로 큰 예전에서만 이루어졌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것도 인쇄술에 의해 대체되었고 하우다와 브뤼셀(Brussel)에는 형제들이 자체적으로 출판사를 설립하

여 수입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Bedaux, 1984: 46).

형제들은 집에 필사를 위한 별도 공간이 없어 보통 자신의 방에서 일했다. 서체 또한 도서관의 형태, 기능 및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했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먼저 'fractura'라고 하는 서체는 상당히 큰 글자로 주로 예전서적에 사용하였는데 이는 사람들이 일정한 거리에서도 함께 읽을 수 있기 위함이었다. 다음에 'rotunda'라는 서체가 있는데 이는 보다 둥근 서체로서 매우 읽기가 쉬워 주로 편지나 성자의 삶에 관한 책에 사용되었다. 'bastarda'라는 서체는 일상적 형태로 대부분의 도서관 서적은 이 서체를 사용하였다. 'currens'는 매우 빨리 쓴 서체로 읽기는 조금 어려워 주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 서체로 쓰인 많은 경건 서적들이 보존되어 있다. 당시 형제자매들이 어떤 책들을 주로 사용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왜냐하면 많은 책들이 분실되었기 때문이며 남은 책들도 일부만 확인 가능하다(Bedaux, 1984: 48).

데벤테에 있던 플로렌스하우스의 도서관은 당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곳에 흐로터의 도서들이 모두 보관되어 있었고 그의 편지들을 읽어보면 그가 어떤 책들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어떤 필자들의 책들을 복사하기 원했는지 알 수 있는데 특히 교부들과 성경주석서들을 원했다. 고전들 중에는 세네카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좋아했고 중세시대에는 주로 신학자들의 책들을 많이 읽었으며 법학 도서들도 많이 소장하고 있었다. 당시 도서관은 이미 카탈로그를 만들었으며 그 중에 두 개가 남아 있다. 대부분의 도서들은 라틴어로 쓰였으나 일부 필사본은 중세 네덜란드어로 쓰였다.

이 운동에 참여한 형제들은 책을 만드는 데 헌신했으며 수많은 책들을 직접 손으로 써서 남겼는데 그 필체가 매우 아름답고도 경건함을 느낄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최소한 5000권의 필사본이 남아 있으며 라틴어 책들을 포함하면 최대 8000권에 이른다. 형제들은 집에 책들을 보관하는 문화가 매우 강조되어 그들이 소장했던 책들은 최소한 60만권으로 추정된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인 이때부터 네덜란드인들은 책을 많이 읽는 문화(boekcultuur)가 정착되었다. 나아가 이 사역에 자매들도 중요한 공헌을 했으며 이 형제자매들은 소책자들, 설교들, 대화록뿐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장르도 창조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대조 및 제안(collatie en propositum)이다. 나아가 가장 중요한 점은 이들의 텍스트문화(tekstcultuur)인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개방성(openheid)을 기초로 한다. 이들은 매우 세밀하고 정교한 텍스트를 쓰기 위해 노력하면서 늘 점검, 수정, 개정하는 일이 계속 일상화되었지만 동시에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텍스트에 대해 포괄적인 자유(grote vrijheid)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텍스트를 읽어보면 강한 주장을 하는 구조라기보다는 저자가 자신만의 용도를 위해 본문 옆에 기록한 추가적인 설명들, 경구들, 인용들과 같은 주석(raparium) 구조 및 모듈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은 토마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이다. 이러한 사역은 네덜란드인들의 삶 속에 뿌리내려 지금도 네덜란드어로 쓰인 문서들을 보면 글자크기가 비교적 작으면서도 매우 치밀하고 깊이가 있어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이 운동이 네덜란드 국민들 전체의 삶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 알 수 있다.

1591년에 네덜란드에 대한 스페인의 지배가 끝나자 플로렌스도서관에 있던 책들은 압수되어 시립도서관에 소장되었다. 1610년에 이 책들을 공개 판매하였는데 이때 흐로터가 소장했던 많은 고가 서적들이 팔려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어거스틴, 그레고리우스, 암브로시우스, 히에로니무스 및 요한 크리소스툼(Johannes Chrysostomus)같은 교부들의 책들은 잘 보존되어 있다. 1639년 이후 책을 필사하는 것은 서서히 감소되었고 그 시

간은 공동연구로 대체되었다(Bedaux, 1984: 49).

6.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에서의 교육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을 확산하는데 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첼레가 큰 공헌을 했다. 쾰블레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나이에 라틴학교를 다녔고 나중에 그 학교의 교장이 되었다. 그가 다닐 당시 이 학교는 아직 교구에 속한 학교였다. 그 후에 그는 데벤터에 있는 라틴학교를 다녔고 프라하와 파리에서도 공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흐로터를 위해 책들을 자주 필사했으며 함께 파리에 가서 서적들을 구입해오곤 했다. 흐로터는 첼레가 수도사가 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신앙갱신운동 및 교육 분야에 헌신해 줄 것을 권유했다. 당시 첼레는 아직 공동생활 형제단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구입 및 다른 여러 가지 일에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그는 기도생활에 집중했으며 하나님을 크게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첼레는 1377년부터 1415년까지 세계 최초의 김나지움이라고 할 수 있는 쾰블레 라틴학교 교장이 되어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을 확산시켰다. 그의 성경강해 및 교육은 학생들, 시민들 그리고 많은 교회와 수도원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시의 고위공무원들도 그에 의해 양성되었다. 책들을 현지어로 필사하여 판매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학생들을 지원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성경 및 교부들의 저작들을 가르쳤고 학생들을 나이별로 나누어 진급시험도 치르게 했다. 학생 수가 많을 때는 800에서 1000명에 달하였는데 당시 시 전체 인구는 5천명이 되지 않았다. 고학년 학생들은 저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으며 파리에서 유학한 두 명의 교사도 있었다. 이 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대학교로 진학했다.

첼레는 엄격한 규율을 시행하였으나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어 부자나 가난한 학생을 차별하지 않았다. 부유하나 게으른 학생들은 퇴출시켰지만 가난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수업료를 면제해주었고 시민들과 형제들 그리고 자신의 집 등에 학생들을 수용했다. 첼레의 명성은 급속히 퍼져나가 이 학교는 유럽 전체에 알려지게 되었고 여러 나라에서 유학생들이 왔다. 이처럼 첼레는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통해 19세기 이후 김나지움이라고 불리는 교육체계의 기초를 놓았으며 수많은 제자들이 교회, 수도원 및 시청의 지도자가 되어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공헌했다.

첼레는 또한 교회음악가로 성 미가엘 교회, 즉 쾰블레 대교회(Grote Kerk)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며 자신이 가르치던 학교의 학생들을 모아 성가대를 조직하여 지휘하기도 했다. 그는 그레고리안 성가를 선호하여 주로 단음으로 불렀으며 성탄절에만 화음으로 찬양했다. 하지만 1415년 쾰블레는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의 여성수도원 문제로 위트레흐트의 영주이자 주교였던 프레데릭 판 블랑켄하임(Frederik van Blankenheim)과 갈등관계에 처했다. 그러자 첼레는 교회음악가와 교장이라는 두 직위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게 되어 결국 교장직을 사임했고 다른 두 명의 교장에 의해 대체되었고 그 후 이 학교는 전성기가 지나갔다.

첼레의 저작들은 유실되었지만 그의 제자 중 한 명인 부쉬는 빈데스하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첼레의 생애에 관해 기록을 남겼고(Busch, 1886) 다른 유명한 제자인 토마스도 아그니튼베르그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첼레에 관해 언급했다. 이 학교 졸업생 중에 한스포르트와 네덜란드 출신의 유일한 교황이었던 아드리아누스 6세(Paus Adrianus VI: 1459-1523), 네덜란드 의회 민주주의의 기초를 놓은 정치가였던 토르베케(Johan R. Thorbecke: 1798-1872) 그리고 조직신학자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 등이 있다.¹³⁾

13) 지금도 쾰블레의 김나지움은 그의 이름을 따 첼레아눔(Celeanum)이라고도 불리며 네덜란드의 10대 명문학교로

이러한 교육 개혁은 평신도들의 문맹률을 급속히 낮추었고 특히 성경을 자국어로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다가올 교회개혁의 발판을 놓았다. 그 후 많은 개혁자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었으며 특히 깔뱅은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였다. 네덜란드가 스페인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후 많은 디보치오 모데르나 수도원들을 폐쇄했지만 그 건물을 교육용으로 재활용하기도 했다. 가령 독립운동 지도자였던 빌럼 판 오란여(Willem van Oranje) 공은 레이든에 있던 성 바바라(St. Barbara) 수도원을 폐쇄한 후 그 건물을 네덜란드 최초 대학인 레이든 대학교 건물로 사용하였다.¹⁴⁾

첼레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실험했는데 기본교육과 대학교육을 연결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학생들은 쓰기와 주기도문 그리고 다른 기도문들을 읽는 법을 배웠다. 당시 라틴 학교는 라틴어뿐만 아니라 교회음악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학생들은 가령 아침 6시, 7시 그리고 9시에는 교회에 가서 그레고리안 미사에 찬양을 드렸다. 그리고 형제단은 학생들에게 하숙을 제공하여 얻은 수익으로 일부 생계를 유지했다. 결국 이 김나지움은 칼 5세(Karl V)에 의해 네덜란드 북쪽의 영적 중심지가 되었으나 16세기에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교육에 관한 첼레의 가치관은 주로 사회적 가치들로서 드 프리스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첫째, 고학년 학생들은 신입생들이나 2학년생들을 멘토로 도와준다. 학교에 다닌 지 오래 될수록 책임감은 더 커진다.

둘째, 각 학생은 각기 재능이 있으며 자기 방식대로 배울 수 있다.

셋째, 각 학생은 서로 참여하며 모두 한 배를 타고 있어 누구도 소외될 수 없다.

넷째,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가난한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으로 학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섯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따라서 누구도 편애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교육의 중심 목적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는 것이다.

일곱째, 음악 교육은 다른 재능들을 촉진시켜 요한 첼레의 학교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여덟째, 학교 공동체 내외에서 서로 돌아보며 병자, 가난한 자 및 외국인들을 돌본다.

아홉째, 학교의 학생이 된다는 것은 교육, 행동, 규정 및 의복/돌봄의 영역에 동의하는 것이다.

열 번째, 교육에 중요한 가치들은 절제, 검소, 경건 및 공동체성이다.

열한 번째, 학생들이 개인적인 공책을 가져 개인적으로 배운 것들을 모아 복습하고 대화하는데 사용하도록 가르쳤다.

마지막으로 첼레는 성경 및/또는 교부들의 텍스트에 대해 학생들과 대화했다. (De Vries, 2018)

토르베케는 당시 수상으로서 중등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867년에 쾰레에는 공동생활 자매단이 살던 곳에 74명의 학생들로 직업학교를 개교했다. 1876년에는 최초의 여학생 마위더만(Geertje Muijderman)의 입학이 허용되었고 1880년에는 여학생들을 위한 공

인정받고 있다. 나아가 요한 첼레 과제 인스티튜트(Huiswerkinstuut)과 첼레센트룸(Celecentrum)으로 불리는 음악학교도 있다. 공동생활 형제단 옆에 있던 그의 집에는 첼레의 문(Celepoortje)과 그의 동상도 있다.

14) 그는 독립운동을 하던 중 디보치오 모데르나 수도원인 델프트의 성 아가타(St. Agatha) 수도원에 머무르다 거기서 암살당했다. 이는 그도 이 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립학교도 문을 열었다. 유명한 여작가인 안팅크(Margot Antink)가 이 학교에서 가르쳤다. 개척교회 학생들을 위한 학교도 1869년부터 첼레구역 및 형제단 건물에 자리를 잡았다. 주목할 점은 19세기까지도 15세기에 세워진 학교 건물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쾰레의 교육은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Berkenvelder, 1980: Chap. 11).

7. 토마스 아 캠퍼스

토마스는 독일 크레펠트(Krefeld) 근처인 캠펠(Kempen)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대장장이였던 얀 헤메르켄(Jan Hemerken)이었고 모친은 교사인 게르트루드(Gertrude)였다. 1393년에 그는 형이 먼저 가 있어 추천했던, 당시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의 중심지였던 데벤터의 라틴학교로 보내졌다. 여기서 직접 흐로터의 지도를 받았으며 7년간 라더베인스 집에 머무르면서 그의 영향도 받았다. 토마스는 공부하면서 많은 문서들을 필사했는데 나중에 그는 필사만으로도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얼마 후 그는 형이 원장으로 있던 쾰레 근처의 성 아그니튼베르그 수도원에서 의전사제가 되었다.

그는 당시에 널리 퍼져있던 신비주의 학파에 속해 고요한 삶을 살면서 시간을 쪼개어 미사, 고해성사 청취, 경건 훈련, 필사 및 복사하는데 전념했다. 그는 성경을 네 번 필사했는데 그 중의 한 권이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 지금도 다름슈타트(Darmstadt)에 보관되어 있으며 '다름슈타트 성경'이라고 불린다. 그 외에도 그는 많은 글들을 남겼는데 거의 라틴어로 적었다. 그는 성경을 깊이 알아 그의 저작은 항상 성경 구절, 특히 신약을 인용한 것들도 가득차 있었다. 그의 저작들은 모두 경건을 주제로 한 소책자, 묵상, 서신 및 설교였다. 그의 역사적 소책자들 중에는 흐로터의 생애, 라더베인스의 생애, 아홉 명의 다른 형제들 및 리두이나 판스히담(Liduin van Schiedam)에 관한 것도 있었고 아그니튼베르그 수도원 역사에 관해서도 책을 썼다.

디보치오 모데르나를 대표하는 그의 『그리스도를 본받아』¹⁵⁾는 약 1418년에서 1427년까지 라틴어로 처음 쓰였고(Espin & Nickoloff, 2007: 609) 이 운동의 핸드북이라고 할 수 있다(Van Engen, 1988: 7-12).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내적 신앙체험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교제로 인도하고 있다(Berkenvelder, 1980). 이 책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한다. 즉 영원한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가난, 검소, 겸손 및 자기부인의 삶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저자에 대해 강조하지 않는다. "누가 이것을 말했는지 묻지 말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묵상하라"고 말한다. (I, 5, 6) 이 책은 네 개의 책을 모은 것으로 제 1권은 '영적 생활에 관한 유익한 훈계'로 25장이며 제 2권은 '내적 생활의 경성'에 관한 12장으로 되어 있고 제 3장은 '내적인 위로'에 관한 59장이며 마지막 4권은 '성례전'에 관한 18장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개인적 기도의 삶 및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깊이, 진지하게 추구하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노력했다.

본서는 200년 전에 살았던 독일의 신비주의 학자 에크하르트(Eckhart)가 1300년에 집필한 『가르침에 관해(Reden der Unterweisung)』 및 『신적인 위로(Buch der göttlichen Tröstung)』

15) 이 책은 여러 한글번역으로 출판되었지만 이 운동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다는 점은 아이러니컬하다.

』와 유사한 점이 있다. 하지만 그의 신비주의는 정죄를 받았기에 토마스의 책은 보다 도덕적이고 교회 친화적으로 쓰였다. 그는 흐로터와 조금 달리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강조한 다소 감정적인 경건운동을 주도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상은 기독교 신학, 윤리학 및 영성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이 개념 및 실천에 대한 내용은 이미 초대 교회의 바울 서신들에 나타난다(Jestice, 2004: 393-394).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근본적인 목적이며 아담의 범죄를 본받는 것에 대한 치료라고 보았다(Alexander, 2008: 218). 아시시의 성 프랜시스도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본받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본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어 그리스도처럼 청빈한 삶을 살면서 설교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비잔틴 신학에서 항상 있어온 주제였는데 14세기에 니콜라스 카바실라스(Nicholas Cabasilas)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Life in Christ)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덕이라고 보았다(O'Collins, 2004: 115). 이런 배경에서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은 진정한 경건을 재발견하고 미지근한 사제들을 재회심시키는 것이었다(Molendijk, 2006: 59-62). 이 책은 북부 유럽을 넘어 결국 교회개혁 운동으로 귀결되었다(Wakefield, 1983: 113-114). 개신교도들 중에도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 출판되어 읽힌 책으로(Miola, 2007: 285) 1650년 이전에 이미 745회나 인쇄되었고(von Habsburg, 2011) 기독교의 고전으로 평가된다. 토마스는 1471년 7월 25일에 92세로 소천하여 수도원교회 동쪽에 묻혔다. 1672년에 그의 유해는 다시 관에 담겨 지금까지 쾰른의 성 미가엘교회에 보관되어 있다.

8.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의 유산

교회개혁에 영향을 미친 디보치오 모데르나 인물들 중에 위트레흐트의 성 히에로니무스학교(Sint- Hiëronymusschool) 교장이 된 힌느 로드(Hinne Rode)가 있다. 나중에 그는 한스포르트의 성만찬에 관한 개혁적인 글을 루터에게 전달했다. 1520년 엠덴에서 최초로 개신교 예배를 대교회(Große Kirche)에서 인도한 아포르타누스(Georg Apertanus)도 이 운동의 영향을 받고 공동생활 형제단에서 훈련받은 후 최초로 개혁주의적 성만찬을 1526년에 제정하였다. 하르텐베르크(Albert Hardenberg)는 흐로닝엔의 공동생활 형제단에서 자라며 이 운동에 큰 영향을 받아 개인 경건 및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헌신의 삶을 배우며 1527년에 아두아르트(Aduard)에 있던 성 버나드 시토 수도원(Zisterzienserklöster St. Bernhard)의 수도사가 되었다. 나아가 유럽 북서부 프리슬란트 지역에서 일어난 개혁 운동은 이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이 교회개혁의 길을 열어주는 빛장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최용준, 2017: 199-227).

반 영언도 이 운동이야말로 가장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영향을 미친 교회갱신 운동이었으며 이후에도 청교도주의(Puritanism) 등과 같은 여러 다른 형태로 발전하였다고 보면서 나아가 진정한 경건의 가장 무서운 적은 종교의 전문화임을 이 운동은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Van Engen, 2008: 3). 하지만 그는 이 운동과 교회개혁 운동을 지나치게 직접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는 이 운동이 중세 말기에 일어난 원칙적으로 가톨릭 운동이지 르네상스나 교회개혁의 초기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당시의 형제자매들이 제도적인 구조 및 경건의 형태를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이라는 특별한 비전을 추구하는 것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으로 보며 이러한 노력이 어떤 경우에는 나중에 르네상스 또는 교회개혁에서 다루어진 이슈들과 일치하는 변화 내지는 충돌을 가져왔

다는 것이다(Van Engen, 2008: 10).

최근 이 운동은 다시 큰 관심을 끌어 이 운동의 발상지인 데벤터의 하이데마(Heidema) 시장 및 쾰블레의 메이어(Meijer) 시장은 지난 2011년 11월 많은 영역에 이 운동의 유산을 함께 발전시키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www.trouw.nl/home/zwolle-en-deventer-blazen-moderne-devotie-nieuw-leven-in~a93cb7de). 두 시장은 사회 영역, 관광 및 문화, 행정, 경제, 예술, 교육 및 영적인 삶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가능한 서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운동은 점차 전국으로 퍼져 지금은 네덜란드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이 운동과 관련된 트래킹(zwolle.christenunie.nl/modernedevotie) 및 자전거 코스도 개발되고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 및 지역적 정체성을 찾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네덜란드의 역사가 헤르멘 뵈레이(Hermen Pleij)와 프리츠 판 오스트롬도 이 운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아가 이 운동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www.thomasakempiszwolfe.nl/cms/index.php/nieuws/nieuws/342-2016-feb-deventer-motie-aangenomen.html). 현재 이 운동은 드 프리스에 의해 새로운 부흥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는 토마스의 책을 현대 네덜란드어로 재번역하여 출판하였고(2008) 이 시대에 접목하기 위해 새로운 웹사이트(postmodernedevotie.nl)를 개설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2013).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이것이 어떻게 중세말의 네덜란드 및 유럽 사회를 총체적으로 변화시켰는지 고찰하였다. 이 운동이 한국 사회에 적용 가능한 점들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로 이 운동은 무엇보다 개인 경건을 회복하려는 운동이었다. 어떤 중개자도 없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가 가장 중요하며 그러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깨우쳐 주었다. 따라서 이 운동은 본질적으로 각 사람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내적 갱신 운동이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독서를 강조했다. 성경 외에도 여러 도서를 구입하고 읽으며 묵상하는 일에 전념했는데 여러 명이 함께 텍스트를 읽고 이와 관련한 다른 도서도 언급하면서 서로 생각을 나누기도 했다. 나아가 관련 음악을 듣기도 하고 조각 등 예술품을 감상하기도 했다. 또한 당시 일부 사제들의 탐욕을 비판하면서 개인의 검소 및 검소한 삶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면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다. 경제개발에 의해 소득 수준은 높아졌으나 오히려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 및 사회 불평등구조가 심화되어 인구가 감소하며 자살률이 증가하는 등 한국사회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경건, 검소 및 정직한 윤리를 실천하여 한국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이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은 참된 공동체 회복 운동이었다. 이 공동체 생활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본받으려 한 것으로 철저히 '성경적'인 운동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공동체로 살지만 어떤 서원도 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이었으며 사회의 일부였다. 하지만 이들은 학업, 명상 그리고 기도에 힘썼으며 구걸하지 않고 자신의 농장, 빵집 그리고 맥주 양조장을 소유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평범하고도 검소한 삶을 살았다. 또한 함께 책들을 모으고 공부하면서 필사하던 형제들은 결국 데벤터를 문화와 책의 도시로

변혁시켰던 것이다. 한국교회도 교회건축과 같은 물량주의 및 세습과 같은 세속적 가치를 지양하고 이러한 진정한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 진력해야 한다. 나아가 공동생활 형제단 및 자매단과 같은 자발적 공동체들이 생겨난다면 교육, 지역사회의 문화 및 경제 등 다양한 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한국사회 전체의 유대 및 결속력을 강화하여 상부상조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셋째로 이 운동은 교육을 통한 사회변혁 운동이었다. 헬레는 최초로 김나지움을 설립하여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고 결국 이들은 개혁의 지도자들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켰다. 한국교회도 기독교의 중요성을 재발견하여 기존의 많은 미션스쿨 및 기독교대학들 중 성경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된 곳들은 회복하여야 하며 다시금 올바른 인재들을 양성해야 한다. 최근에 기독교대학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열악한 재정상황 및 구체적인 방향 설정에 아직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을 깊이 벤치마킹하여 교회와 학교 및 가정이 단결하여 교육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며 불필요한 사교육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인성, 지성 및 영성이 통합된 교육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입시 제도를 개혁하여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는 동시에 대학교육 절대주의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이 운동은 철저히 평신도들 중심적인 운동이었으며 여성들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 매우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개혁도 이 부분을 더욱 발전시켰다. 한국교회도 남성목회자들의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세습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평신도들과 여성들의 중요성을 새롭게 회복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도 아직 남녀 간의 격차가 큰데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운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개혁을 추구했다. 이 운동에 참여한 성도들은 총체적 개혁에 헌신하여 세상을 변화시킨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자 했고 그렇게 헌신함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 나라의 일군이였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아직도 성속을 구별하려는 이원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여 주일 중심의 신앙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사회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교회 및 기독교인들은 이 운동의 역사를 더욱 깊이 연구하고 본받아 이 시대에 한국사회에 새롭게 적용함으로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명수 (2009). *Devotio Moderna 운동과 종교개혁* (박사학위논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Kim, M. S. (2009). *Devotio Moderna Movement and Reformation* (Ph.D dissertation. Kukje Theological Seminary)]
- _____ (2015). *기독교 르네상스와 루터의 종교개혁*. 서울: 그리심.
[Kim, M. S. (2015). *Christian Renaissance and Luther's Reformation*. Seoul: Grism.]
- 최용준 (2017). “엠덴(Emden)의 종교개혁과 변혁에 관한 역사적 고찰”, *신앙과 학문*, 22권 4호(통권 73호), 197-225.
- [Choi, Y. J. (2017). “A Historical Research on the Reformation in Emden and its Transformation” *Faith & Scholarship*, 22-4(No. 73), 197-225.

- Acquoy, J. G. R. (1968). *Het klooster te Windesheim en zijn invloed*, 3 dln. Utrecht 1875-1880,
repr. in 2 banden, Amsterdam.
- Akçomak, İ. S.; Webbink, D.; ter Weel, B. (2016). "Why Did the Netherlands Develop So Early?
The Legacy of the Brethren of the Common Life". *The Economic Journal*. 126 (593):
821-860. doi:10.1111/econj.12193.
- Alexander, D. C. (2008). *Augustine's early theology of the church*. New York: Peter Lang.
- Atheneumbibliotheek, Museum De Waag, Deventer: Het Catharijneconvent, Utrecht. (1984).
Geert Grote en de moderne devotie. Utrecht.
- Bedaux, J. C. (1984). "Boeken bij de moderne devotie", *Geert Grote en de moderne devotie*.
Utrecht. 43-49.
- Berkenvelder, F. C. (1980). *Korte geschiedenis van Zwolle*. Zwolle: Waanders.
- Bollman, A. M. (2004). *Frauenleben und Frauenliteratur in der Devotio moderna, Volkssprachige Schwesternbücher in literarhistorischer Perspektive*. Groningen: s.n.
- Busch, J. (1886). *Des Augustinerpropstes Johannes Busch Chronicon Windeshemense und Liber
de reformatione monasteriorum*. Grube, K. (ed.), Halle.
- Caron, M. L. (1984). "Ansien doet gedencken: De religieuze voorstellingswereld van de moderne
devotie" *Geert Grote en de moderne devotie*. Utrecht. 25-42.
- Defoer H. L. M. & Slechte, C. H. (1984). "Verantwoording", *Geert Grote en de moderne devotie*. Utrecht. 4-5.
- De Vries, M. (2008). *De Navolging Van Christus In Jonge Taal*, Adveniat Geloofseducatie B.V.
_____. (2013). *Pleidooi voor postmoderne devotie: navolging vanuit vrijheid en gemeenschap*, Boekencentrum.
_____. (2013). *Mystiek aan de IJssel: biddend leven*, VBK Media.
_____. (2018). Unpublished manuscript.
- Een klooster ontsloten. De kroniek van Sint Agnietenberg bij Zwolle door Thomas van Kempen* (2000). Kampen: Stichting IJsselacademie.
- Espín, O. O. & Nickoloff, J. B. (2007). *An introductory dictionary of theology and religious
studies*. Collegeville, Minn: Liturgical Press.
- Goudriaan, K. (Ed.) (2008). *Vernieuwde innigheid. Over de Moderne Devotie*, Geert Grote en
Deventer. (Deventer reeks). Nieuwegein: Arko.
- Grube, K. (ed.) (1886). *Des Augustinerpropstes Johannes Busch Chronicon Windeshemense und
Liber de reformatione monasteriorum*, Halle.
- Hand, J. O. (2006). "Prayers and Portraits: Unfolding the Netherlandish Diptych", National
Gallery of Art, Washington D.C.
- Herweyer N. & Slechte, C. H. (1984). "Deventer in de 14e eeuw" *Geert Grote en de moderne
devotie*. Utrecht. 50-62.

- Hiddema, S. J. (1984). "Geert Grote, 1340-1384", Geert Grote en de moderne devotie. Utrecht. 6-11.
- Hyma, A. (1965). The Christian renaissance; a history of the "Devotio moderna." 2d ed. Hamden: Archon.
- Iserloh, E. (1975). Thomas von Kempen und die Devotio Moderna. In: ders. (Hrsg.): Kirche - Ereignis und Institution. Aufsätze und Vorträge, I: Kirchengeschichte als Theologie. Münster/Westfalen 1975, S. 111-136.
- Jestice, P. G. (2004). Holy people of the world: a cross-cultural encyclopedia, Vol. 3. ABC-CLIO.
- Kempis, T. à. (1982). The Imitation of Christ. edited and paraphrased by Donald E. Demaray. Grand Rapids: Baker,
- Miola, R. S. (2007). Early modern Catholicism: an anthology of primary sources. Oxford University Press.
- Molendijk, A. L. (2006). Paradigms, poetics, and politics of conversion by Jan N. Bremmer, Wout Jac. van Bekkum. Peeters Publishers.
- O'Collins, G. (2004). A concise dictionary of theology. Edward G. Farrugia.
- Post, R. R. (1968). The modern devotion. Confrontation with reformation and humanism. Leiden, E. J. Brill.
- Strand, K. A. (1977). "John Calvin and the brethren of the common life: the role of Strassburg" Andrews University Seminary Studies, 43-56.
- Van Engen, J. H. (1988). Devotio Moderna: basic writings. New York: Paulist Press.
- _____. (2008). Sisters and Brothers of the Common Life: The Devotio Moderna and the World of the Later Middle Age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Van Herwaarden, J. (1984). "Gemenschappen en kloosters van de Moderne Devotie", Geert Grote en de moderne devotie. Utrecht. 12-24.
- Van Oostrom, F. (2013). "Moderne Devotie in tekst en context" wp.titusbrandmainstituut.nl/nl/wp-content/uploads/2014/12/Frits-van-Oostrom-Moderne-De-votie-in-tekst-en-context.pdf
- Von Habsburg, M. (2011). Catholic and Protestant Translations of the Imitatio Christi, 1425-1650: from Late Medieval Classic to Early Modern Bestseller. Ashgate.
- Wakefield, G. S. (1983).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Spiritualit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Weismayer, J. (1992). Geert Groote, Christian Schütz (Hrsg.): Praktisches Lexikon der Spiritualität. Herder, Freiburg i.Br. u. a.
- Wengert, T. J. (ed.). (2009). The Pastoral Luther. Essays on Martin Luther's Practical Theology. Lutheran Quarterly Books. Wm. B. Eerdmans Publishing.
- Zijl, T. P. van. (1963). Geert Groote, Ascetic and Reformer (1340-1384).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Washington D.C.

emmaus.nl (2018.09.01.)
postmodernedevotie.nl (2018.09.01.)
www.bookcrossing.nl (2018.09.01.)
www.buurtzorgnederland.com (2018.09.01.)
www.cliniclowns.nl (2018.09.01.)
www.christianhistoryinstitute.org/magazine/article/interior-design (2018.09.01.)
www.geertgrootehuis.nl (2018.09.01.)
www.thomasakempiszwolle.nl/cms/index.php/nieuws/nieuws/342-2016-feb-deventer-motie
-aangenomen.html (2018.09.01.)
www.trouw.nl/home/zwolle-en-deventer-blazen-moderne-devotie-nieuw-leven-in~a93cb7d
e (2018.09.01.)
zwolle.christenunie.nl/modernedevotie (2018.09.01.)

논문초록

디보치오 모데르나(Devotio Moderna) 운동에 관한 역사적 고찰

최용준 (한동대학교)

본 논문은 디보치오 모데르나(Devotio Moderna) 운동에 관한 역사적 고찰이다. 이는 14세기 후반에 네덜란드 데벤터에서 히어트 흐로터(Geert Groote)에 의해 시작되었고 플로렌스 라더베인스(Florens Radewyns), 요한 첼레(Johan Cele) 및 토마스 아 캠퍼스(Thomas à Kempis) 등에 의해 공동생활 형제단 및 자매단으로 더욱 발전하여 유럽 전체로 확산된 평신도 중심의 개혁 운동으로 겸손, 순종 및 단순한 삶과 같은 진정한 경건을 개인 및 공동체적으로 실천하고 나아가 사회의 여러 경제 분야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네덜란드와 유럽사회를 변화시켰다. 지금도 이 운동은 깊은 영적 유산을 남기고 있어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 운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나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교회개혁(Reformation)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유럽을 어떤 방식으로 변혁시켰는지 고찰한 후 이 운동이 남긴 유산은 무엇이며 이것이 한국교회 및 사회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결론적으로 도출한다.

주제어: 디보치오 모데르나, 히어트 흐로터, 요한 첼레, 토마스 아 캠퍼스, 데벤터